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맞춤 지원

전남도, 120곳에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설치’ 130곳 지원도

전남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 안전관리 120곳에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30곳에 위험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에는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부산 등이 포함됐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고용노동부가 재원을 부담한다. 도는 전남경영자동차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한국노총 등 노사민정협의회, 전남지역 산단·농공단지 협회와 협력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업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 120곳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120곳 ▲밀폐공간 등 위험 사각지대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130곳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9개 외국어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이동식 3D 레이저 지게차 종사자(600명)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현장 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컨설팅을 산업안전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총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안전장점 지원은 약 130개 사업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공과와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안전 챔피언’으로 선정해 현장 참여와 자율적 안전관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월30일 서유정방고 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의지를 공유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광·황순수 기자 whng04@siminilbo.co.kr

군동·대구·옴천면에 ‘기초생활거점’

강진군, 대규모 국비 확보

복합문화센터 연내 완공

전남 강진군은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 군동면·대구면·옴천면 일원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촌 지역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커뮤니티 기능을 강

화해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다수의 국비를 확보하며 면 단위 중심 기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올해안에 군동면사무소 부지에 8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704㎡, 3층 규모의 민청사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 대구면 또한 민청사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역시 올해 안에 대구면사무소 부지에 6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9㎡, 2층

규모로 만든다. 옴천면 역시 4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79㎡,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 사업은 실시계획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025년 12월 착공했다.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향후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기초생활거점 시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정환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청양군, 작년 산사태 피해지구 복구 착수

청양읍·온곡면 등 20곳서 추진

우기 전까지 모든 공정 마무리

충남 청양군이 산사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추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착수한다. 군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청양읍, 온곡면, 대치면 등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6개 지구 20곳(4.17ha)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기 이전 준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공정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산사태로 훼손된 사면의 안정화 작업을 비롯해 배수시설 보강 등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현장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해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군 관계자는 “이번 산사태 복구사업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기 전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복구사업과 병행해 지역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성과관리 업무 담당자 워크숍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3월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한다. 사진은 교육에 참석한 이원성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충남 서산시는 지난 30일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워크숍’의 일환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과제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3월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한다. 사진은 교육에 참석한 이원성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영암을 설 기획전 조기 완판

매출액 10억... 단체매출 6억

전남 영암군이 최근 설 명절맞이 온라인 농특산물 판촉 할인 기획전에서 10억원의 매출을 올려 조기 마감했다.

온라인 ‘영암발’은 지난 1월 13~21일 기간으로 예정했던 ‘2026년 설 명절 2025년 20% 할인장’을 조기 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영암물 정상품에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명절 선물 등 수요에 앞서 행사를 시작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암발이 기업·단체의 명절 직원·협력업체 선물 구입처로도 자리 잡았다는 점에도 나타났다. 전남시향위원회와 HD현대상호 등 13개 단체는 지난 2025년 추석이 이어 영암발에서 직원·협력업체 선물을 구매했다. 이들을 포함한 단체 매출은 전체 기획전 판매액 중 약 4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영암군은 전했다. 2025년 한해 동안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에는 총 8만3254명의

영광군, 월평·백수방조제 개보수 본격화

국비 253억등 총 336억 확보

올해 실시계획... 2028년 완공

전남 영광군은 염산면 아월리 월평방조제와 백수방조제 개보수사업이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 총사업비 336억원(국비 2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월평방조제와 백수방조제 인근

농경지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침수 및 염해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최근 이상기후와 해수위 상승 등으로 방조제 유효 및 해수기 유입에 따른 농작물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조제 정비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 D등급을 받았고, 장세일 영광군수는 2025년부터 국외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6

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을 시작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방조제 제체 및 배수갑문을 개보수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재해피해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라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광·정수정 기자 jay@siminilbo.co.kr

순천시, 올해 무공해수 341대 보급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100억 투입... 전환지원금 신설

전남 순천시는 도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월부터 전기 및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확보된 사업비를 토대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총 341대에 대해 100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

고 밝혔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당 전기 승용차는 최대 1101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00만원, 수소 승용차는 3450만원을, 수소(자생)버스는 3450만원을, 승용(수소·전기), 화물(전기)의 경우 개인은 1대, 기업·법인·단체의 경우 최대 3대까지 버스(수소)의 경우 법인 당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및 기

업·법인·단체, 시에 소재한 시내·전세버스 운수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도 신설됐다. 보조금 신청은 구에까지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대령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지원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2년 의무운행을 준수해야 하며, 위장정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순천·이문성 기자 lms@siminilbo.co.kr

경남도, 아세안 소비재 신시장 공략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4월 印尼·싱가포르에 파견

경남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소비재 수출 증대기업을 위해 아세안 신시장 진출을 위해 ‘2026 경남 아세안 소비재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무역사절단은 오는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 싱가포르에 파견되며 풍주·전남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절단에는 경남지역 10개사와 광주·전남지역 10개사, 총 20개 기업이 참가해 현지 무역관 및 발판인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분야 도내 중소기업 10곳으로, 신청지역 바이어 발굴과 상담 매칭을 지원하고 1인 정도

항공료와 통역비(50%) 등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아세안 수출시장,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3월 중순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창녕·김정명 기자 kjy@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업무 협약식에서 김영우 군수(왼쪽 세 번째) 협약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의원 2곳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협약

전남 보성군은 최근 싸목싸목의원, 다온의원원과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비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틀 돌봄 대상자들에게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싸목싸목의원과 다온의원원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 체계를 갖춰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재활 진료, 한방 진료 등 재택의료 전반이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과 통틀 돌봄 대상자에게 포괄적 지역사회의에서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돌봄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성·황순수 기자 whng04@siminilbo.co.kr

산청군 산내청소필름, 정기구독관 운영

경남 산청군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산내청소필름’에서 정기구독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정기구독관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형 판매서비스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산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정기 배송 받을 수 있다. 정기구독 대상품목은 친환경쌀, 유기농우, 달걀, 바나나 등 7개 품목의 260여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정기구독 신청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4회차 40% 등 구매 횟수에 따라 단계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꾸준히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할수록 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구독의 장점”이라며 “오는 18일까지 진행 되는 설 기획전에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내청소필름은 지난 2022년부터 정기구독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25년에는 약 2만건의 주문과 7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청·이문성 기자 lms@siminilbo.co.kr

장흥군, AI 활용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큰 호응

전남 장흥군은 AI 활용을 기반하며 대응 영농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당초 계획 대비 21%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겨울철 농忙기를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 정책과 새로운 영농기술, 품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 해 영농실적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AI 활용 기반하며 대응 식량작물 재배기술과 친환경농업,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9개 과장 17회, 총 1200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비롯해 농작업 안전, 과수화상병 예방, 농약 안전사용, 농정시책 등 변화된 농업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장흥·정명재 기자 jyc@siminilbo.co.kr

홍성군, 영유아 보육료·수당 사전신청 접수

충남 홍성군은 다가오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영유아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사전신청 대상은 3월부터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영유아이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및 복지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지역 안전 개선’ 유관기관 회의 개최

전남 진도군은 최근 군청 생활실에서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지역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안전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기수 부군수를 비롯해 군 관련 부서장,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호 부군수는 “진도군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경,소방이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안전한 진도를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진도·황순수 기자 whng04@siminilbo.co.kr